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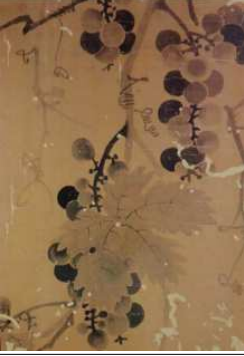


◆ 렌줄리(Renzulli) 영재교육

정의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렌줄리의 정의	<p>‘평균 이상의 능력’, ‘높은 창의성’ ‘높은 과제 집착력’의 세 가지 특성이 있다.</p> <p>이러한 세 가지 특성은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재성을 드러내는데, 이의 바탕은 하운드투스(Houndstooth)라 불리는 ‘리더십’이다. Renzulli 이론의 특이한 점은 처음으로 ‘과제 집착력’이라는 비지적인 요인을 영재성의 한 요소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영재란 이 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이 세 가지 특성에서 모두 뛰어나야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한 특성에서는 적어도 2% 이내에 속해야 하지만 나머지 특성에서는 상위 15% 이내면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각 개인이 가진 영재성이 발현되려면 환경적인 영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p>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이상의 능력 : Renzulli는 웨슬러 지능검사로 측정하였을 때, 지능 지수가 약 115 이상이면 충분히 영재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창의성 : 창의성의 개념이 매우 다양하며 분분하지만 한마디로 ‘새로우면서도 유용한 것을 생각해내거나 만들어내는 특성’이라고 정의한다. Renzulli가 영재성의 일부로 제시했던 창의성은 1970년대의 시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주로 ‘확산적 사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과제 집착력 : 과제 집착력은 어떤 한 가지 과제 또는 영역에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성격 특성을 일컫는다. • 리더십 : Renzulli(2003)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능력 이외에 주변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하운드투스(Houndstooth) 이론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갖추고 있는 것이 영재성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필수 조건인 리더십이 영재의 특성과 동기에 깊이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 하운드투스(Houndstooth) : 세 고리를 둘러싸고 있는 톱니모양의 배경으로 개인의 인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위상미술]

	<p>김홍도 <총석정도> : 간결하면서도 힘 있는 직선적 필법(절대준과 마이준이 결합된 : 종횡으로 그어진 수직선에 태미짐)으로 묘사한 산수화이다.</p>
	<p>시오타 치하루 <DNA와 대화>, 1975~ : 사람들로부터 신던 신발과 그 신발의 주인과 관련된 기억 한 가지를 함께 기부 받아 설치한 작품이다. 대부분의 신발은 사랑하는 사람을 남기고 떠난 사람들이 신던 것이었다. 뺑뺑히 묶인 실들이 마치 떠난 이들의 기억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p>
	<p>웨민진 : 입을 크게 벌리고 박장대소하는 화가 자신의 모습을 반복해서 그리는 웨민진의 그림은 복잡한 역사와 현실에 대한 혼란스런 심리를 웃음과 조롱으로 표현한 것이다. 백인백색 똑 같이 웃는 법이 없건만 웨민진의 캐릭터는 모두 같은 색깔의 웃음이다. 작품에 나오는 그의 웃음은 현실에 대한 실망, 인생에 대한 절망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절망적인 느낌은 매우 시니컬한 면을 웃는 형상으로 표현해 낸다. 그가 표현하고자 한 시대, 사회에 대한 절망을 슬프고 괴로운 표정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실소, 시니컬한 웃음으로 표현한 점이 그의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다.</p>
	<p>신사임당 <목포도도> :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린 포도, 굵은 가지와 잔가지, 넓은 잎사귀와 어린 덩굴의 모습을 물골법으로 표현하였으며, 여백과 조화를 이룬다. 선의 강약과 농묵, 중묵, 담묵의 농담을 우아하고 부드럽게 구사하였다. 포도는 자손 번창을, 줄기와 덩굴이 길게 뻗어나가는 것은 부귀와 장수를 상징한다.</p>
	<p>정선, <계상정거도> : 산과 나무, 그리고 집 한 채가 어우러져 있다.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려 낸 물결 모양과 시냇물은 움직일 듯한 생동감을 준다. 1000원권 지폐 뒷면에 정선의 <계상정거도> 가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이황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안동 도산 서원을 중심으로 주변 산수를 담은 작품으로 계상정거란, 시냇물이 흐르는 곳 위에 자리를 잡고 고요하게 산다는 뜻이다.</p>

· 이개선이 <중록화품>에서 제시한 육요를 제시하고, 6요를 갖춘 절파를 높이며, 화가가 피해야 할 병 4가지를 말하며 오파를 낮추었다.

절파	오파
<p>이개선이 <중록화품>에서 제시한 육요는 신필법, 청필법, 노필법, 경필법, 활필법, 운필법이다.</p> <p>신필법은 중횡무진하게 오묘한 이치가 신비스럽게 조화되는 것이며, 청필법은 간결하고 뛰어나며 빛나고 깨끗하면서 촘촘하지도 않고 환하게 트이면서 비어있는 듯 하고 밝아야 한다. 노필법은 마치 푸른 등나무, 오래된 향나무같이 고고하며, 갈라진 옥과 구부러진 쇠와 같이 오래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경필법은 활과 힘 있게 나가는 화살과 같이 굳센 모습이어야 한다. 활필법은 필세가 나르는데, 달리는 듯하면서, 잠시 느린듯 하다가 도리어 빠르고 갑자기 모였다가 홀연히 흩어지는 듯한 것이다. 운필법은 필법이 물에 촉촉이 젖어 함축성이 있으며 그 속에서 생기가 은근히 자욱하게 나타나는 것이다.</p>	<p>회화의 필법과 용필에 있어서는 화가가 피해야 할 병으로 강(僵), 고(枯), 탁(濁), 약(弱)의 네 가지를 말하였다. 강은 뻣뻣한 것이다. 필법이 법도가 없어서 운필을 할 수 없으니 마치 뻣뻣하게 땅바닥에 얽어져 있는 것 같다. 고는 마른 것이다. 용필이 초췌한 대나무, 바삭 마른 벗집, 타고 남은 재와 썩은 벗단같은 모습이다. 탁은 흐린 것이다. 기름진 모자, 때묻은 옷, 뿌연 거울, 흐리지 않고 고여 있는 물과 같은 것이다. 약은 약한 것이다. 용필에 뼈와 골격이 없어서 단조롭고 알팍하며, 무르고 연하여 마치 버드나무 가지, 죽순, 물위에 떠있는 마름, 가을철의 쭉대와 같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필법과 용필에서 <u>뻣뻣하고, 마르고, 흐리고, 약한 것을 피하며</u> 마음과 붓이 조용하여 자연경물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p>

[위상미술]은 합격입니다.